포교 전념할 수 있게 군법사 전폭 지원해야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일면 주지)와 본사가 공동으로 진행해온 '2006년 군포교합시다' 캠페인은 군포교 활성화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포교에 대한 관심 제고, 군포교 시스템 강화 등 여건의 변화와 불교계의 인식전환을 이끈 점이 캠페인의 수확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할일이 많다. 열악한 포교 환경 개선은 물론 군법사 확보와 재원 충당 등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지난 1년간의 캠페인을 마무리하며 '군포교 활성화'를 위한 지상 좌담을 마련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주지 일면 스님과 예비역 군법사이자 군종교구 산하 군포교연구실장인 정선진 법사, 현역 가운데는 5군단 김갑영 법사와 종합행정학교 김창모 법사에게 군포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군종교구 중심의 조직적 포교활동과 군불교 후원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사진은 지난 11월 30일 서울 종로구 하림각에서 열린 제38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일면 스님 정선진 법사 김갑영 법사 김창모 법사

'군포교 활성화' 지상좌담

일면: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출범 1주년을 맞아 군포교의 위상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요? 저는 교구장 취임 이후 군 사찰을 직접 방문해 보면 군 신자들의 사기가 충천되어 있고 기대가 큰 것을 느낍니다. 향후 제반 포교 여건을 활성화하여 군법사가 오직 포교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구의 지원과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선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각 군사찰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던 신도들의 신행활동 지도 및 군법사의 포교활동이 교구 중심으로 조직화되었으며 신도관리 및 교육, 연수 등의 사업도 체계화된 것 같습니다.

김갑영: 교구의 출범으로 군승단 시절에 비해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군내의 불교 위상 제고와 함께 법사들의 조직에 대한 귀속력과 결속력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군종교구 출범이후 많은 변화 있어

김창모: 개인적으로는 개별적이고 분산되어 있던 군포교 활동들이 점차 군종교구로 집중되어 가는 느낌을 갖습니다. 아울러 조직이 시스템화 되어가고 법제화 되어감에 따라 활동 근거들을 찾을 수 있어 조직발전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변화된 조직에 대한 공유와 참여의식의 결여에 따른 조직구성원간의 사고와 행동의 차이가 공존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일면: 조계종 군종교구 예산은 종단 지원금과 군사찰 분담금 등 약 4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만인동참입니다.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 군불교에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자구책이었습니다. 현재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격려와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2,100여명에 달하는 등록인원이 4,000구좌 이상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진: 주지스님 말씀처럼 전국의 주요 사찰과 신도들의 후원으로 만인동참이 군포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목표치에 아직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종단 및 전국 사찰의 대덕 스님들과 군불교를 사랑하는 사부대중의 동참이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모금된 후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군불교가 활성화되는 모습으로 여러 후원자들로부터 신의를 쌓아가야 하겠습니다

김갑영: 만인동참에 후원을 해주신 모든 사부대중에게 감사의 뜻을 밝힙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 지속적인 후원과 관심이 절실합니다. 종단에서도 군 포교 주간 등을 정해 그 주간에 나오는 보시금을 군포교 기금으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후원체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종단 및 교구본사에 상시로 군포교 지원 보시함을 따로 설치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만해요. 한국불교의 미래가 곧 군 불교에 달려 있음을 모든 불자들의 의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인동참, 재원 확보에 도움

김창모: 교구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 한 일입니다. 보완한다면 만인동참에 머무르지 말고 다양한 형태의 후원방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가령 후원 방법을 다양화해서 일시 회원(1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정기 회원(월 1만원), 평생회원(500만원 이상)의 구분을 두고 회원에게 부대방문 행사, 군종지 발송, 연말 정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일면: 최근 군법사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비구니스님이나 군포교 원력을 가진 타종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군장병 종교인 숫자에 비례해 군법사 정원이 결정되는 만큼 군포교 원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문호를 개방해 군불자 수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총무원장스님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하셨고 현재 조계종 총무원과 군종교구 관계자들이 실무팀을 꾸려 세부 사항을 논의 중입니다. 군불교가 타종교와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비구니 스님과 타종단의 군승 파견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선진: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 바로 군법사 스스로의 노력과 정진을 통한 자질향상입니다. 제도적으로 비구니스님이나 타종단의 불교 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군포교의 원력을 가진 사부대중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군법사 확보에도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갑영: 일정 연령과 자격을 갖춘 스님들을 의무적으로 군법사로 복무하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군법사 경력을 주지 임명 등 인사 고과에도 반영한다면 많은 스님들이 군법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복무할 것입니다. 또한 자질 향상을 위해 보수 교육, 해외 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어학, 상담, 의례 등 각 방면의 전문가를 양성해야 첨단의 포교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타 종교의 경우 우리보다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불교도 이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문가 양성에 매진해야 합니다.

군포교 주간 정해 기금 조성을

김창모: 군승 확보를 위해 타종단 참여나 비구니스님 영입 등을 고려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장의 수급 문제로 30년간 쌓아온 군승 조직을 타종단과 거래하듯 하여 영입한다거나 비구니 승가를 군승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교감이 없이 받아들인다면 포교를 하는데 내부적으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수급 차질이 있더라도 내부적인 가치를 향상시키고 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군법사 배출의 산실인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의 정상화가 가장 급선무입니다.

군종교구와 종단이 긴밀하게 협조해 불교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불교에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아울러 현실적인 군문제 해결과 사명감을 가지고 불교에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일면: 저는 교구장으로서 일선의 어려움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가장 걸림이 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구에서 우선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선진: 28년간 군법사로 살면서 무엇이 군포교의 큰 걸림돌이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군법사 확보 및 자질 향상, 군법사의 포교 의지와 원력, 신도교육, 합리적인 군사찰 운영, 군종교구의 종무행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파악하고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군법사 복무 스님에 인센티브 부여

김갑영: 사부대중의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터와도 같은 군불교의 현실과 한국불교의 미래를 가슴으로 절실히 느껴봐야 합니다. 절집안에서는 불교가 있는 듯 하지만 절문 밖에서는 불교도, 불교인도 찾아볼 수 없다는 어느 외국인의 지적과 같이 우리 군불교도 현 실태가 얼마나 절박한지 절실히 느껴야 합니다.

김창모: 우선적으로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아직도 군종교구와 종단과의 거리가 커 보입니다. 내부적으로도 군종법사와 군종스님의 간격도 있어 보입니다. 이원화된 정체성으로는 단결된 모습으로 포교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군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종교 활동이 없습니다. 군법사 개인 성향에 따라 신도들에게 제각각 전달됨으로써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포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면: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각 군사찰, 군신자 통합 네트워크 구축에 전력해왔고 비구니 스님 운용 방안, 타종단 군법사 파송, 민간인 성직자 활용, 후원 조직 체계화, 군신자 과반수 확보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선진: 군종교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며 군법사는 포교에 진력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연대급 법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포교 지원비 지원, 신병교육대 법회 프로그램 개발 및 빔 프로젝트, 노트북 등 장비지원과 수계활성화를 위한 금박수계첩 지원 등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지요.

김갑영: 지금은 양적인 포교보다 질적인 포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많은 신자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한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불자 만들기가 더 큰 과제입니다. 아울러 각 계층과 세대에 맞는 새로운 법회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불사에 있어서도 주먹구구식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군특성 살린 법회 프로그램 개발

김창모: 군포교 연구실을 활성화해 전체적인 포교 혁신 장 단기 프로그램과 군승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몇 년간의 개론서적인 불교지식과 수행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과 경험이 바탕이 되지 않는 이벤트성 프로그램만으로는 포교의 장기 비전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또, 조직 발전은 내부의 끊임없는 혁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관료주의적 조직 문화, '나를 따르라'는 하향식 시스템으로는 조직의 발전을 기할 수 없어요. 군종 교구가 출범하여 얼마 되지 않아 하향식의 일처리 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수도 있습니다. 군법사들이 '화이부동(和而不同)' 자세로 참여한다면 조직의 발전과 포교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정리=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제26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안내자료 및 공개특강 비디오를 보내드립니다.(1만원)

상담학 박사 임재형

개강 1월 4일 오전 10시

기간 매주 목요일 6시까지 (7회과정)

통신교육 전체 교육 내용을 녹화한 비디오 테잎을 보내드림(총20개)

▶과정별 교재 및 실습테잎 제공

▶특전 : 전생상담사 이수증 발급 및 회원 가입 후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심리상담사 자격취득 可

▶참가비 : 200만원
입금계좌 : 조흥은행591-01-008086 (한국의식개발원)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 의 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대화를 통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소멸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 한다.
명리학 성명학	사주 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군겁쟁재요....
최면학	최면의 원리, 자기최면, 타인최면 최신기법, 심리치료, 자율훈련, 성격개선, 자신감 고취, 집중력, 기억력 초증강법, 슬픔, 번뇌 집착에서 벗어나는 후최면 건망법, 자연치유력 활성법 등

심리상담 전문가 / 한국생활최면학회장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커버넌트대학교 최면치유학 교수
KBS 무한지대큐, MBC TV특종 놀라운세상,
SBS 백만불 미스터리, Vj세상 속으로, iTV, 방송 등 출연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외 다수 대학과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 에서 강의

驚異 강의를 마치는 즉시 현장에서 바로 활용됩니다.

•전 화 : (042)255-0734~5
•주 소 : 대전연정국악원(구)시민회관후문 청운빌딩(2층) 대전역에서 5분거리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주최 : 한국전생 · 빙의 연구원
주관 : 한국최면과학원 www.HYPNOS114.COM